

유무죄 심증이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 미 선[†]

동양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무죄 심증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총 44명의 진술분석 전문가 및 비전문가들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전체 참가자 중 절반은 유죄 심증 형성 증거를 제공 받았으며, 나머지 절반은 무죄 심증 형성 정보를 제공 받았다. 이후 모든 참가자들은 동일한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CBCA)을 실시하였다. CBCA는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 유죄 심증 집단의 CBCA 점수는 무죄 심증 집단의 CBCA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죄 심증 집단은 무죄 심증 집단에 비해 피해 아동 진술이 더 일관적이며(준거1. 논리적 일관성), 구체적(준거4 맥락상 깊이)이라고 평가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비전문가 집단 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으며, 더 많은 CBCA 준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유무죄 심증과 전문성 간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아, 심증 효과는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에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진술신빙성 판단 시 심증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인지적 편향, 진술분석, CBCA, 진술분석전문가, 유죄심증

[†] 교신저자: 이미선,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 조교수, 경북 영주시 동양대로 145
E-mail: msy23@dyu.ac.kr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 사건은 증거 및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아동 진술의 진위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유죄 판결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거짓 진술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지적 능력과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전문가 의견조회 규정을 신설하여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도록 하였으며,¹⁾ 이를 근거로 경찰에서는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박노섭, 조은경, 이미선, 2013).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CBCA)은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술분석 기법으로(Kohnken & Steller, 1988), 현재 진술분석 전문가들은 CBCA 결과를 근거로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경찰청, 2018).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확보하기 어렵다. 다만 검사와 판사(이수정, 2009; 박종선, 2013) 그리고 경찰을(김민희, 이승진, 2018)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법전문가들은 진술분석 의견서가 자신의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진술분석 의견서는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잘못된 진술분석은 결과적으로 법적 의사결정 시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

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다만 지금까지 CBCA 관련 연구는 CBCA의 타당도(Amado, Arce, & Fariña, 2015; Oberlander, Naefgen, Koppehele-Gossel, Quinten, Banse, & Schmidt, 2016; Vrij, 2005 참고)와 CBCA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특성과 면담 과정에 초점을 두었으며(Vrij, Akehurst, Soukara & Bull, 2002; Yuille & Cutshall, 1989; Hershkowitz, Fisher, Lamb, & Horowitz, 2007; Vrij, 2008; Rudy & Brigham, 1998), 평가자의 인지적 편향이 CBCA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CBCA 분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평가자 오류의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적 의사결정과 인지적 편향

확증편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해석하려는 인지적 오류를 의미 한다(Nickerson, 1998). 이는 기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설을 확증하는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초점을 두거나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발생하게 된다(Lord, Ross, Lepper, 1979; Nickerson, 1998).

법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법전문가들의 법적 의사결정에서 인지적 편향과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uthrie, Rachlinski, & Wistrich, 2001, 2002; Rachlinski, 2000; 김청택, 최인철, 2010; 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법관은 법률에 대한 전문가이자 판단의 전문가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형성한 심증과 일관된 방식으로 증거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 의사결정 시 판단자의 주관적 개입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Hastie, Penrod & Pennington, 2002; Pennington & Hastie, 1992).

누구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1) 전문가의견조회제도는 2003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 신설되었으며, 이후 2010년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3조(전문가 의견조회)에 의거하여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진술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로 추정해야 한다는 형사 절차의 기본원리에도 불구하고(헌법 제27조4항), 수사관은 용의자에 대해 암묵적으로 유죄를 가정하는 경향이 존재한다(Meissner & Kassin, 2002). 이러한 유죄 심증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유죄 입증을 위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게 하며(Kassin, Goldstein & Savitsky, 2003), 더 나아가 유죄심증을 형성한 수사관은 자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들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하는 방식의 강압적인 수사 면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ssin et al., 2003; Powell, Hughes-scholes & Sharman, 2012).

일반적으로 법과학적 증거(예: DNA 등)는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이며 배심원들은 법과학 전문가들의 판단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Podlas, 2006). 하지만 기존 연구에 따르면 법과학 전문가들의 기대나 사건에 대한 편향된 정보는 총기분석(Kertholt, Eikelboom, Dijkman, Stoel, Hermsen, & van Leuven, 2010), DNA 분석(Dror & Hampikian, 2011), 지문 분석(Dror & Cole, 2010; Dror & Charlton, 2006)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학 전문가(Wigmore, 1923), 임상 또는 정신의학 전문가(Murrie, Boccaccini, Guarnera, & Rufino, 2013)의 범임상 평가 있어서도 다양한 인지적 편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진술 증거만으로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하는 경우 판단의 오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Horner, Guyer, Kalter, 1993) 전문가 증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Herman, 2005).

진술타당도평가(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진술타당도평가(Statement Validity Assessment)는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단도구로 1950년대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Kohnken

& Steller, 1988). 진술타당도평가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동과 면담을 통해 진술을 얻는 과정이다. 가급적 개방형 질문으로 아동의 자발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진술분석 단계로 피해 의심아동 진술의 진실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CBCA는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진술은 상상이나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는 Undudcutch의 가설을 기초로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고려되는 19개의 내용 준거들로 구성되어 있다(Kohnken & Steller, 1988; 표 1 참조). 평가자는 피해 의심 아동 진술을 검토하여 CBCA 19개 내용 특징이 진술에 존재하는 여부(존재/부재) 또는 얼마나 강하게 존재하는지(예: 0점~3점)를 판단한다(Vrij,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준거에 대한 평가는 존재 또는 부재의 방식을 사용한다(경찰청, 2018). 마지막으로 타당도 평가 단계에서는 진술분석 결과가 아동 진술의 진위 이외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검토한다(Vrij et al., 2002). 예를 들어 면담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무관하게 CBCA 점수는 높아질 수 있으며(Yuille & Cutshall, 1989), 면담 방식이나(Vrij, 2008), 타인의 코치 여부(Rudy & Brigham, 1998; Vrij et al., 2002) 등은 CBCA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타당도 평가 단계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특성, 면담 과정의 적절성, 허위로 고소할 동기 등 피해자 진술 이외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실시한다(Kohnken & Steller, 1988).

CBCA 관련 실험연구 및 실제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연구 결과에 따르면 CBCA는 진실한 진술과 거짓 진술을 유의미하게 구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mado et al., 2015; Oberlader, et al., 2016; Vrij, 2005), CBCA를 통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정확률은 대략 70%로 알려져 있다(Vrij, 2005). 진술분석 기법이 법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진술분석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한 논쟁은 빈번하게 발

표 1. CBCA 준거

범주	준거	준거 설명
1. 일반특성	1. 논리적 일관성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
	2. 구조화되지 않은 표현	진술이 표현방식의 자연스러움
	3. 세부내용의 풍부함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등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묘사
	4. 맥락상 깊이	사건 맥락 정보가 풍부하게 제시
	5. 상호작용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행동과 반응
	6. 대화의 인용	사건 당시 대화를 직접적으로 인용
	7. 사건 중 예기치 않은 일 발생	사건 중 예상치 못한 중단, 어려움, 자발적 종료
	8. 독특한 세부내용	사건에 대한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내용
2. 내용특성	9. 부가적인 세부내용	사건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세부 묘사
	10. 정확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내용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설명
	11. 관련된 외적 연합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사건 발생 가능성 시사
	12. 주관적인 심리상태 묘사	피해자 자신의 생각 또는 정서 표현
	13. 가해자의 정신상태 귀인	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추론
	14. 자발적인 수정	자신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수정
3. 동기특성	15. 기억의 부족 시인	기억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정
	16. 자기 진술의 의심제기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려
	17. 자기비난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혐의를 초래할 수 있는 진술
	18. 가해자용서	가해자 행동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용서해주는 진술
4. 사건특성	19. 범죄 특징에 대한 세부내용	특정한 범죄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술

주. 준거 및 준거 설명은 Steller & Koehnken,(1988)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생활 수 있지만 진술분석 자체의 신뢰성과 타당도에 대한 불신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Vrij, 2008). 우리나라 역시 법정에서 진술분석과 관련 쟁점사항은 주로 진술분석관의 전문성, 관련된 자격증 보유 여부 및 관련 교육 이수 등 대부분 전문가의 역량과 관련된 것이며(박노섭 등, 2013), CBCA가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적절한 도구인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무죄 증거

가 CBCA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CBCA은 현재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으로(Vrij, 2008), 진실한 진술과 거짓 진술을 유의미하게 구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mado et al., 2015; Oberlader, et al., 2016; Vrij, 2005). 다만 CBCA은 준거 평가 시 평가자의 주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Vrij, 2010), 개별 준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Mazzoni & Ambrosi, 2003). 또한 일부 CBCA 준거(예: 준거 2, 5, 11, 12, 15)는 평가자간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Anson, Golding, & Gully, 1993),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평가자간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박노섭 등, 2013; 박종선, 2013; 이미션, 2018; 한유화, 박광배, 2016). 따라서 진술신빙성 판단 과정에서 평가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인지적 편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술타당도평가 절차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 시 피해자 진술 이외 아동의 특성, 진술 확보 과정의 적절성, 허위로 고소할 동기의 존재 유무 등 다양한 사건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Kohken & Steller, 1988). 다만 이와 같은 정보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CBCA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CBCA 분석은 사건 관련 정보와 무관하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Kohken & Steller, 1988). 그러나 실무에서는 진술분석 단계와 타당도 평가 단계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더 중요하게 피해자의 진술에는 필연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분석 전문가들은 CBCA 분석 과정에서 이미 다양한 사건 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유/무죄 심증 형성 정보가 CBCA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 CBCA 분석 시 심증의 효과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지적 편향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판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법기관 전문가들의 법적 의사결정에서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Guthrie, et al., 2001, 2002; Rachlinski, 2000). 그럼에도 평가자의 전문성은 심증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평소 암시적 수사방식을 사용하는 수사관은 유죄 증거가 제시된 경우 무죄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보다 아동과 면담 시 더 많은 유도

질문을 사용하였으나, 효율적인 수사면담에 익숙한 수사관은 아동 면담 시 제시된 유무죄 증거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Powell et al., 2012). 이는 숙련도가 높은 전문가는 비전문가보다 심증의 영향을 더 적게 받았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BCA 분석 시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 심증의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죄 심증 집단은 무죄 심증 집단에 비해 CBCA 총점이 더 높을 것이다.

둘째, 진술분석 전문가 집단은 비전문가 집단에 비해 CBCA 판단 시 유무죄 심증 형성 증거의 영향을 더 적게 받을 것이다.

연구 방법

예비 분석

유무죄 심증이 CBCA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1) 아동 성폭력 사건 녹취록 및 (2) 유무죄 심증 형성 증거를 제작하였다. 이후 제작된 녹취록의 적절성과 사건 관련 증거들이 실제 심증을 형성 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성폭력 사건 녹취록

실험을 위하여 4건의 아동 성폭력 사건 녹취록이 제작되었다. 연구자는 동일 연령대 아동 성폭력 사건을 참고하여 가상의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하였다. 사건은 진술분석 전문가들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수사면담 녹취록과 동일한 형태로 수사관의 질문에 아동이 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4건의 아동성폭력 녹취록은 아동의 연령과 사건 경위가 달랐으며 전체 문답 수 및 질문에 따른 응답 수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표 2 참조).

만일 사건 내용만으로 이미 유죄 또는 무죄

표 2. 아동 성폭력 사건 내용

사건 번호	피해자 연령(세)	피해자 성별	사건 내용
사건 1	10	여	피의자는 피해자와는 알지 못하는 관계로 학원을 가고 있는 아동을 기습적으로 추행
사건 2	12	여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딸에 방에 들어가 자신의 딸을 강간
사건 3	9	여	피의자는 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피해자를 차로 유인하여 추행
사건 4	7	여	피의자는 피해자와 채팅으로 만난 사이로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유인 후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

표 3.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혐의 및 신빙성 판단

사건번호	문답수	전체 응답수	질문당 응답수	혐의 판단 명, (%)		진술 신빙성 명, (%)		신빙성 (%)
				유죄	무죄	존재	부재	
사건 1	18	249	13.83	19 (95.0)	1 (5.0)	19 (95.0)	1 (5.0)	68.48
사건 2	48	381	7.94	12 (60.0)	8 (40.0)	10 (50.0)	10 (50.0)	45.25
사건 3	37	103	2.78	6 (30.0)	14 (70.0)	5 (25.0)	15 (75.0)	27.37
사건 4	29	398	13.72	17 (85.0)	3 (15.0)	16 (80.0)	4 (20.0)	63.00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추후 심증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증거의 효과는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작한 녹취록이 실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4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혐의 판단을 실시하였다. 총 14명의 대학생(연령 평균 = 22.62, 표준편차 = 1.502; 성별 남 = 8명, 여 = 5명)은 녹취록을 읽은 후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실시하였다. 신빙성 판단은 신빙성 존재/부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00% 기준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를 평가 하였다. 총 4건의 녹취록에 대한 혐의 판단 결과, 사건 1과 4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사건 3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무죄로 판단하였다. 반면 사건2의 혐의 및 진술신빙성 판단이 가장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건 1, 3, 4를 제외한

사건2에 대한 CBCA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건2 녹취록 예시는 다음과 같다.

문1: 지은아(가명), 그럼 여기 왜 오게 된 건지 이야기 해볼까?

답1: 어... 아빠가 가슴 만지고, 소중한 부위를... 제 소중한 부위에다 넣고... 그런 다음에... 음... 그게 다 인거 같은데....

문2: 아 그러면 그런 게 한 번 있었어, 여러 번 있었어?

답2: 한 번이요.

문3: 그래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이야기해 볼까?

답3: 아빠네 집에 자러 갔는데.. 그날 아빠가 컴퓨터해서 지호(가명)랑 둘이서 텔레비 보고 놀았거든요. 제가 심심해서 휴대폰 할라고 휴대폰 딱 꺼내고 하는데 아빠가 막... 무슨 놀리듯이 막, 바보야 하면서 막

놀려가지고 안방으로 갔어요.

문4: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답4: 내가 기분 나빠서 밥 안 먹으라고 했는데
아빠가 장난이라고 하면서 밥 먹자고 해
서 저녁 먹었어요. 삼겹살 해줘가지고 먹
었어요. 아빠랑, 지호랑 셋이서. 아빠는 술
먹고....

유/무죄 심증 형성

유/무죄 증거는 사건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증
명해 줄 수는 없으나 사건이 실제 존재 또는 부
재 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 증거 및 물적
증거로 구성되었다. 사건2의 유무죄 심증형성
정보는 표 4와 같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가 실제 참가자들의
심증을 형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연구
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26명의 대학생(연령 평
균 = 20.96, 표준편차= 2.6; 성별 남 = 16명,
여 = 1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12명(46.2%)은 유죄 심증 형성 증거를, 나머
지 14명(53.8%)은 무죄 증거를 받았으며 이후 동
일한 아동 성폭력 사건 면담 녹취록(사건2)을 읽
은 후 피의자 혐의 판단(유죄/무죄) 및 아동 진

술의 신빙성 판단(존재/부재)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죄 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의
78.6%(11명)는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유죄라고
응답한 반면 무죄 증거를 제시받은 집단의
75%(9명)는 무죄라고 응답하였다. 추가적으로 유
죄 심증 증거를 제시 받은 참가자의 78.6%(11명)
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무
죄 정보를 제시받은 참가자의 66.7%(8명)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무죄
심증 형성 정보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심증을 형
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진술분석 전문가 및 비전문가들이 연구에 참
여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 집단은 현재 경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으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진술
분석관 보수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이었다. 총
26명의 전문가들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23명이 연구에 동의하였다. 다만 전문가로 활동
경력이 적은 경우 진술분석 숙련도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활동 경력이 1년 미만인 참가자 3
명을 제외한 20명의 참가자가 실시한 분석 결과

표 4. 사건2에 대한 유무죄 심증 형성 정보

증거	유죄 심증 형성 정보	무죄 심증 형성 정보
증거1	피의자 이철민(만43세)과 피해자 모인 김영주(만 38세)는 작년 5월경부터 별거상태이며, 현재 이혼 재판 중에 있음	피의자 이철민(만43세)과 피해자 모인 김영주(만 38세)는 작년 5월경부터 별거상태이며, 현재 이혼 재판 중에 있음
증거2	피해자 이지은의 동생 이지호(만 9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밤 자다 잠깐 잠이 깨었을 때 아빠가 누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빠는 누나가 있던 바닥이 아닌,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	이철민은 사건 당일 밤 10시부터 새벽4시까지 근처 PC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
증거3	김영주가 제출한 핸드폰 음성 파일에 의하면 이철민은 김영주에게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이 존재	이철민이 제출한 핸드폰 음성 파일에 의하면 김영주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철민을 상대로 이혼 양육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잦은 다툼과 논쟁이 있었음
증거4	이철민은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이철민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음

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전문가의 평균 연령은 41.80세(표준편차 = 9.18), 성별은 전원 여성이었다. 진술분석관으로 활동기간은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80개월로 평균 45.14개월(표준편차 = 23.49)이었으며, 진술분석 의견서 작성한 건수는 평균 84건(표준편차 = 127.276)으로 나타났다.

비전문가 집단의 경우 2018년 경찰청 소속 진술분석 신규 전문가 양성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심리학, 아동 장애인 관련 전공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의 지원을 받아 1차 서류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류 심사에서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생들은 교육 수료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전문가로 위촉된다. 총 25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24명이 연구에 동의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37.16세(표준편차 = 6.974)로 모두 여성이었다.

비록 연구 참여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교육생들은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추후 전문가 위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가자들의 학력, 경력을 포함한 어떠한 개인 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청 소속 진술분석 전문가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 후 성폭력 상담소, 심리상담, 심리평가 관련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경력 1년 이상²⁾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 비전문가 집단 모두 심리학 또는 아동, 장애인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 및 관련 경력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두 집단은 CBCA 숙련도 이외 학력, 경력, 자격 사항 등 다른 요인에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절차

연구는 2018년 경찰청에서 진행된 진술분석 전문가 교육 과정 중에 실시되었다. 전문가 집단 교육은 현재 진술분석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아동 성폭력 사건(사건2) 녹취록 및 사건 관련 정보를 동시에 제시 받았다. 교육 참가자 중 절반은 사건에 대한 유죄심증 형성 증거를 받았으며, 나머지 절반은 무죄심증 증거를 제시 받았다. 이후 사건에 대한 CBCA 분석을 실시하였다. CBCA 분석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CBCA 판단은 교육의 일환으로 연구 참여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생 전원이 실시하였다. 다만, 분석 종료 후 연구자는 교육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가를 희망하는 교육생에 한하여 분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육생들은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고지 받았으며, 연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생은 별도의 분석 결과지를 작성하여 교육장에 마련된 제출함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반면 연구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교육생은 분석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분석 결과지를 제출함에 넣을 수 있었다. 이후 교육과정은 연구 참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교육생 전원은 자신이 실시한 진술분석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비전문가 집단의 자료는 2018년 진술분석 신규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중 수집되었다. 실험 절차 및 내용은 전문가 교육과 동일하였다. 다만 신규교육은 5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본 실험은 교육 2일차에 진행되었다. 교육 1일차는 진술타당도 평가에 대한 이론적 교육과 CBCA 준거에 대한 설명 및 분석 방법 등 CBCA에 대한 기초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분석 결과지는 (1) CBCA 19개 준거 평가(존재

2) 2018년 진술분석전문가 선발 공고문 참조하였음.

/부재), (2) 피의자에 대한 혐의 판단(유죄/무죄), (3) 아동 진술의 신빙성(존재/부재) 및 (4) 신빙성에 대한 백분율 평가(0% 부재~100% 존재)가 포함되었다. 추가적으로 참가자들의 나이와 성별에 대한 문항이 있었으며, 전문가 집단의 경우 전문가로 활동기간과 지금까지 작성한 진술분석 의견서 수를 확인하였다.

분석 방법

CBCA 개별 준거에 대한 평가는 존재하는 경우 1점, 부재한 경우 0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이후 준거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CBCA 총점은 0점에서 19점 사이의 점수를 가질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준거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원변량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 과

심증형성 조작 검증

제시된 유무죄 증거가 평가자들의 심증을 효과적으로 형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죄심증 집단의 경우 각각

73.7%, 68.2%가 ‘피의자는 유죄’이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무죄심증 집단의 경우 26.3%, 31.8%만이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증거는 연구에서 목적인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심증과 전문성에 따른 CBCA 총점

심증과 전문성에 따른 CBCA 점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죄 심증을 형성한 집단의 CBCA 총점 평균은 5.47점(표준편차 = 3.36)이었으며, 유죄심증 형성 집단의 평균은 7.71점(표준편차 = 2.61)으로 유죄 심증 집단의 CBCA 총점은 무죄 심증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40) = 5.941, \eta_p^2 = .129, p = .019$.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할 때, 전문가 집단의 CBCA 총점은 7.85점(표준편차 = 2.72), 비전문가 집단의 CBCA 총점은 5.46점(표준편차 = 3.20)으로 전문가 집단의 CBCA 총점은 비전문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1, 40) = 5.941, p = .019, \eta_p^2 = .129$. 다만 CBCA 총점에 있어서 전문성과 심증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1, 40) = .220, p = .641, \eta_p^2 = .005$. (표 6, 7 참고). 종합해보면 사건에 대한 사전 정보는 CBCA 총점에 영향을 미

표 5. 심증에 따른 혐의 및 진술신빙성 판단 명(%)

	심증		χ^2	p
	유죄	무죄		
혐의 판단				
유죄 (n = 19)	9 (47.4)	10 (52.6)	12.031	.001
무죄 (n = 21)	7 (33.3)	14 (66.7)		
진술 신빙성				
존재 (n = 22)	15 (68.2)	7 (31.8)	10.615	.001
부재 (n = 18)	3 (16.7)	15 (83.3)		

표 6. 심증과 전문성에 따른 CBCA 총점

집단	<i>n</i>	<i>M (SD)</i>		95%CI
전문가				
무죄심증	10	7.00	(2.94)	[5.180, 8.820]
유죄심증	10	8.70	(2.31)	[6.880, 10.520]
총계	20	7.85	(2.72)	[6.563, 9.137]
비전문가				
무죄심증	13	4.31	(3.28)	[2.711, 5.904]
유죄심증	11	6.82	(2.64)	[5.083, 8.554]
총계	24	5.46	(3.20)	[4.384, 6.742]
총계				
무죄심증	23	5.47	(3.36)	[4.443, 6.865]
유죄심증	21	7.71	(2.61)	[6.501, 9.017]
총계	44	6.54	(3.20)	

표 7. 독립변인 간 효과 검정

	제공합	<i>df</i>	평균제공	<i>f</i>	η_p^2	<i>p</i>
전문성	56.881	1	56.881	7.011	.149	.012
심증	48.196	1	48.196	5.941	.129	.019
전문성X심증	1.786	1	1.786	.220	.005	.641
오차	324.506	40	8.113			
총계	2324.0	44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증의 효과는 전문가 집단이나 비전문가 집단 있어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심증과 전문성에 따른 CBCA 개별 준거 평가

심증에 따른 CBCA 개별 준거 판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유죄심증 집단 전원(21명)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준거1) 있다고 판단한 반면, 무죄심증 집단은 56.5%(13명)만이 진술에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chi^2(1, n = 44) = 11.816, p < .001$. 또한 유죄심증 집단의 81%(17

명)은 피해아동은 사건 발생 이후 맥락적인 정보를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준거4)고 평가하였으며, 무죄심증 집단은 47.8%(11명)만이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chi^2(1, n = 44) = 5.206, p = .024$.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유죄심증 집단은 무죄심증 집단에 비해 더 빈번하게 준거3(세부내용의 풍부함), 준거9(부가적인 세부내용), 준거10(정확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각각 $\chi^2(1, n = 44) = 3.020, p = .078, \chi^2(1, n = 44) = 3.237, p = .067, \chi^2(1, n = 44) = 3.674, p =$

표 8. 심증과 전문성에 따른 CBCA 개별 준거 평가 빈도(%)

준거	유무죄 심증				전문성			
	무죄심증 (n = 23)	유죄심증 (n = 21)	χ^2	P	전문가 (n = 20)	비전문가 (n = 24)	χ^2	P
준거1	13 (56.5)	21 (100.0)	11.816	.000	16 (80.0)	18 (75.0)	.155	.489
준거2	7 (30.4)	10 (47.6)	1.367	.195	6 (30.0)	11 (45.8)	1.154	.223
준거3	13 (56.5)	17 (81.0)	3.020	.078	18 (90.0)	12 (50.0)	8.046	.005
준거4	11 (47.8)	17 (81.0)	5.206	.024	16 (80.0)	12 (50.0)	4.243	.039
준거5	14 (60.9)	17 (81.0)	2.127	.130	14 (70.0)	17 (70.8)	.004	.605
준거6	4 (17.4)	5 (23.8)	.278	.438	3 (15.0)	6 (25.0)	.670	.332
준거7	9 (39.1)	10 (47.6)	.322	.396	17 (85.0)	2 (8.3)	26.134	.000
준거8	7 (30.4)	5 (23.8)	.243	.440	7 (35.0)	5 (20.8)	1.104	.238
준거9	8 (34.8)	13 (61.9)	3.237	.067	10 (50.0)	11 (45.8)	.076	.511
준거10	3 (13.0)	8 (38.1)	3.674	.058	2 (10.0)	9 (37.5)	4.40	.038
준거11	5 (21.7)	1 (4.8)	2.687	.114	3 (15.0)	3 (12.5)	.058	.575
준거12	11 (47.8)	12 (57.1)	.382	.376	18 (90.0)	5 (20.8)	20.919	.000
준거13	7 (30.4)	6 (28.6)	.018	.578	11 (55.0)	2 (8.3)	11.413	.001
준거14	4 (17.4)	8 (38.1)	2.372	.115	10 (50.0)	2 (8.3)	9.549	.003
준거15	4 (17.4)	8 (38.1)	2.372	.115	5 (25.0)	7 (29.2)	.095	.514
준거16	0 (0.0)	0 (0.0)	a	a	0 (0.0)	0 (0.0)	a	a
준거17	0 (0.0)	1 (4.8)	1.121	.477	1 (5.0)	0 (0.0)	1.228	.455
준거18	1 (4.3)	1 (4.8)	.004	.733	0 (0.0)	2 (8.3)	1.746	.292
준거19	5 (21.7)	2 (9.5)	1.224	.246	0 (0.0)	7 (29.2)	6.937	.009

주. 개별 준거의 빈도 및 백분율은 '존재한다'라고 평가한 숫자임.

a. 통계량 계산할 수 없음.

.058).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 CBCA 개별 준거 분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가 집단은 비전문가 집단에 비해 준거3(세부묘사의 풍부함), 준거4(맥락상 깊이), 준거7(사건 중 예기치 않는 일 발생), 준거12(주관적인 심리상태 묘사), 준거13(가해자의 정신상태 귀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한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준거3 $\chi^2(1, n = 44) = 8.046, p = .005$; 준거4 $\chi^2(1, n = 44) = 4.243, p = .039$; 준거7 $\chi^2(1, n =$

$44) = 26.134, p < .001$; 준거12 $\chi^2(1, n = 44) = 20.919, p < .001$; 준거13 $\chi^2(1, n = 44) = 11.413, p = .001$).

반면 준거10(정확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내용)과 준거19(범죄 특징에 대한 세부내용)의 경우 전문가 집단이 존재한다고 평가한 빈도는 비전문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각각 $\chi^2(1, n = 44) = 4.400, p = .038$, $\chi^2(1, n = 44) = 6.937, p = .009$).

심증과 전문성에 따른 진술신빙성 판단

전문가 집단의 경우 무죄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은 73.33%(표준편차 = 69.19), 유죄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은 75%(표준편차= 23.66)로 평가하였다. 반면 비전문가 집단의 경우 무죄 증거가 제시된 경우 신빙성은 26.25%(표준편차 = 20.24), 유죄증거 제시된 경우 59.38%(표준편차 = 26.79)로 전문가 집단은 비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였다($F(1, 28) = 5.606, \eta_p^2 = .167, p = .025$). 다만, 신빙성

판단에 있어 심증($F(1, 28) = 1.726, \eta_p^2 = .058, p = .200$) 및 심증과 전문성 집단 간 상호작용($F(1, 28) = 1.411, \eta_p^2 = .048, p = .245$)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유무죄 심증 형성 정보가 CBCA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유죄 심증 증거를 제시받은 집단은 총 19개의 증거 중 평균적으로 8개의 준거가 진술에 존재하

표 9. 심증과 전문성에 따른 진술 신빙성 판단

집단	n	M (SD)	95%CI
전문가			
무죄심증	6	73.33 (69.19)	[43.239, 103.428]
유죄심증	6	75.00 (23.66)	[44.906, 105.094]
총계	12	74.17 (49.31)	[52.887, 95.447]
비전문가			
무죄심증	12	26.25 (20.24)	[4.970, 47.530]
유죄심증	8	59.38 (26.79)	[33.313, 85.437]
총계	20	39.50 (27.91)	[25.989, 59.636]
총계			
무죄심증	18	41.94 (46.85)	[31.363, 68.221]
유죄심증	14	66.07 (25.81)	[47.282, 87.093]
총계	32	52.05 (40.38)	

표 10. 독립변인 간 효과 검정

	제공합	df	평균제공	F	η_p^2	p
전문성	7259.696	1	7259.696	5.606	.167	.025
심증	2234.696	1	2234.696	1.726	.058	.200
전문성X심증	1827.003	1	1827.003	1.411	.048	.245
오차	36261.458	28	1295.052			
총계	138750.0	32				

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무죄 심증 증거를 제시 받은 집단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5.5개의 준거가 진술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진실한 진술과 거짓 진술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준거이며(Amado et al., 2015), 법원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김정혜, 2015; 아동중앙지원단, 2010). 다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관성과 구체성은 평가자의 심증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준거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무죄 심증이 진술분석 전문가 판단 시 오류의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관성과 구체성이 다른 준거에 비하여 심증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CBCA 준거 평가 방식에서 기인할 수 있다. 19개의 준거 중 준거 1, 2, 3은 진술의 전반적인 특징을 고려하는 반면, 나머지 준거들은 준거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 준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Kohken & Steller, 1988; Vrij, 2008). 따라서 일관성과 구체성에 대한 판단은 다른 준거에 비하여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판단은 비전문가에 비하여 심증에 영향을 덜 받을 것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심증의 효과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관과 일반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인지적 오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Guthrie, et al., 2001, 2002; Rachlinski, 2000; 김청택, 최인철, 2010; 박광배 등, 2005), 인지적 편향은 보편적인 과정으로 전문가 비전문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CBCA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분석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비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CBCA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만으로 유무죄 심증과 전문성에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평가자의 편향된 판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편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은 확증편향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Zapf, Kukucka, Kassir, Dror, 2018). 현재 우리나라 진술분석관들의 경우 임상, 상담, 범죄 등 다양한 심리학 영역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진술분석 관련 교육을 진행 후 심사를 통하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경찰청, 2018). 2018년 진행된 신규 진술분석관 양성과정의 경우 5일간 진행되었는데, 진술분석 관련 교육 15시간, 사례분석 5시간, 의견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 3시간,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교육 8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규교육 이외에도 경찰청 소속으로 활동 중인 진술분석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수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 의사결정과 인지적 편향 관련된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은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집단 토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개인에 의한 판단에 비해 인지적 편향을 감소할 수 있다(Frank, Feeley, Paolantonio, 2004). 특히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반대 신념을 가진 사람과 비판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 오류 가능성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ddell, Roberto, & Yoon, 2013). 이를 고려하여 진술분석 전문가 상호간의 피드백 및 집단 사례분석은 가능한 오류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진술분석 과정에서 인지적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준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평가자

들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방식은 평가의 모호성이나 주관성을 축소하여 법적 의사결정에서 확증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rsholt, Passhuis, & Sjerps, 2007). CBCA의 경우 개별 증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Mazzoni & Ambrosi, 2003). 특히, 우리나라 진술분석 전문가들 간의 CBCA 평가자간 일치도를 고려할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평가자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이미선, 2018). 표준화된 매뉴얼은 평가의 모호성을 감소시키고, 주관적 판단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하여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CBCA 판단의 정확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진술분석 의견서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진술분석 의견조회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유무죄 심증이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CBCA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진술분석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평가자에 주관적 요소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활용 시 평가자에 기인한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 실무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활용과 관련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단지 한 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특수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추행 또는 강간 등 범죄의 종류가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유무죄 정보가 CBCA 분석에 영향이 미치는지 추후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인지적 오류 관련 교육과, 집단 의사결정, 명확한 CBCA 판단 기준 및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이 실제 진술분석관들

의 CBCA 분석 시 심증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자 소개

이미선은 현재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성폭력 피해자 수사면담, 진술신빙성 판단, 목격자 증언, 거짓말 탐지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8). 진술분석가 의견 작성 매뉴얼. 경찰청.
- 김민희, 이승진 (2018).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경찰 조사관의 수사면담 교육 및 제도 만족도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8(4), 83-115.
- 김정혜 (2015).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청택, 최인철 (2010). 법정 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서울대학교 법학 51(4), 317-345.
- 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가상적인 재판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59-84.
- 박노섭, 조은경, 이미선 (2013).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의 개선방안. 경찰청.
- 박종선 (2013). 전문가 의견조회 의 성과와 발전 방안: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41, 86-117.
- 여성아동피해중앙지원단 (2011). 아동 성폭력 피해 관련 국내외 판례 분석. 여성아동피해중앙지원단.

- 이미션 (2018).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평가자간 신뢰도: 진술분석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2), 67-83.
- 이수정 (2009). 아동 대상 성범죄 조사절차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진술타당성분석 (Statement Validity Analysis)의 형사사법적 활용가능성. *한국경찰연구*, 8(3), 141-172.
- 한유화, 박광배 (2016). 한국의 진술분석 활용현황: 서유럽 국가와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법*, 7(3), 137-156.
- Anson, D. A., Golding, S. L., & Gully, K. J. (1993).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Law and Human Behavior*, 17(3), 331-341.
- Amado, B. G., Arce, R., & Fariña, F. (2015). Undeutsch hypothesis and 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A meta-analytic review.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Applied to Legal Context*, 7(1), 3-12.
- Dror, I. E., & Charlton, D. (2006). Why experts make errors. *Journal of Forensic Identification*, 5(4), 600.
- Dror, I. E., & Cole, S. A. (2010). The vision in "blind" justice: Expert perception, judgment, and visual cognition in forensic pattern recognition.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7(2), 161-167.
- Dror, I. E., & Hampikian, G. (2011). Subjectivity and bias in forensic DNA mixture interpretation. *Science & Justice*, 51(4), 204-208.
- Frank, M. G., Feeley, T. H., Paolantonio, N., & Servoss, T. J. (2004). Individual and small group accuracy in judging truthful and deceptive communication. *Group Decision and Negotiation*, 13(1), 45-59.
- Guthrie, C., Rachlinski, J., & Wistrich, A. Inside the Judicial Mind' (2001). *Cornell Law Review*, 86, 777.
- Guthrie, C., Rachlinski, J. J., & Wistrich, A. J. (2002). Judging by Heuristic-Cognitive Illusion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Judicature*, 86, 44.
- Hastie, R., Penrod, S., & Pennington, N. (2002). *Inside the jury*. The Lawbook Exchange, Ltd.
- Herman, S. (2005). Improving decision making in forensic child sexual abuse evaluations. *Law and Human Behavior*, 29(1), 87.
- Hershkowitz, I., Fisher, S., Lamb, M. E., & Horowitz, D. (2007). Improving credibility assessment in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The role of the NICHD investigative interview protocol. *Child Abuse & Neglect*, 31(2), 99-110.
- Horner, T. M., Guyer, M. J., & Kalter, N. M. (1993). Clinical expertise and the assessment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5), 925-933.
- Kassin, S. M., Goldstein, C. C., & Savitsky, K. (2003). Behavioral confirmation in the interrogation room: On the dangers of presuming guilt. *Law and human behavior*, 27(2), 187-203.
- Kerstholt, J. H., Paashuis, R., & Sjerps, M. (2007). Shoe print examinations: effects of expectation, complexity and experience.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65(1), 30-34.
- Kerstholt, J., Eikelboom, A., Dijkman, T., Stoel, R., Hermsen, R., & van Leuven, B. (2010). Does suggestive information cause a confirmation bias in bullet comparisons?.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98(1-3), 138-142.
- Köhnken, G., & Steller, M. (1988). The evaluation of the credibility of child witness statements in the German procedural system. *Issues in Criminological & Legal Psychology*.
- Lord, C. G., Ross, L., & Lepper, M. R. (1979).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37(11), 2098.
- Mazzoni, G., & Ambrosio, K. (2003). L'analisi del resoconto testimoniale in bambini: impiego del metodo di analisi del contenuto CBCA in bambini di 7 anni. Disponibile online: <http://www.psicologiagiuridica.com/numero>, 20006.
- Meissner, C. A., & Kassin, S. M. (2002). "He's guilty!": Investigator bias in judgments of truth and deception. *Law and human behavior*, 26(5), 469-480.
- Murrie, D. C., Boccaccini, M. T., Guarnera, L. A., & Rufino, K. A. (2013). Are forensic experts biased by the side that retained them?. *Psychological science*, 24(10), 1889-1897.
-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 Oberlader, V. A., Naefgen, C., Koppehele-Gossel, J., Quinten, L., Banse, R., & Schmidt, A. F. (2016). Validity of content-based techniques to distinguish true and fabricated statements: A meta-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40(4), 440-457.
- Pennington, N., & Hastie, R. (1992). Explaining the evidence: Tests of the story model for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189.
- Podlas, K. (2006). The CSI effect and other forensic fictions. *Loy. LA Ent. L. Rev.*, 27, 87.
- Powell, M. B., Hughes Scholes, C. H., & Sharman, S. J. (2012). Skill in interviewing reduces confirmation bias.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9(2), 126-134.
- Rachlinski, J. J. (2000). Heuristics and biases in the courts: ignorance or adaptation. *Or. L. Rev.*, 79, 61.
- Ruby, C. L., & Brigham, J. C. (1998). Can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distinguish between true and false statements of African-American speakers?. *Law and Human Behavior*, 22(4), 369-388.
- Vrij, A. (2005).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A qualitative review of the first 37 studie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1(1), 3-41.
- Vrij, A. (2008). *Detecting lies and deceit: Pitfalls and opportunities*. John Wiley & Sons.
- Vrij, A., Akehurst, L., Soukara, S., & Bull, R. (2002). *Will the truth come out?* The effect of deception, age, status, coaching, and social skills on CBCA scores. *Law and human behavior*, 26(3), 261-283.
- Vrij, A., Kneller, W., & Mann, S. (2000). The effect of informing liars about 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on their ability to deceive CBCA rater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5(1), 57-70.
- Waddell, B. D., Roberto, M. A., & Yoon, S. (2013). Uncovering hidden profiles: advocacy in team decision making. *Management Decision*, 51(2), 321-340.
- Wigmore, J. H. (1923). *A treatise on the Anglo-American system of evidence in trials at common law: Including the statutes and judicial decisions of all jurisdic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Vol. 3)*. Little, Brown.
- Yuille, J. C., & Cutshall, J. (1989). *Analysis of the statements of victims, witnesses and suspects*. In *Credibility assessment* (pp. 175-191). Springer, Dordrecht.
- Zapf, P. A., Kukucka, J., Kassin, S. M., & Dror, I. E. (2018). Cognitive bias in forensic mental health assessment: Evaluator beliefs about its nature and scop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4(1), 1.

1 차원고접수 : 2020. 01. 21.

수정원고접수 : 2020. 05. 14.

최종게재결정 : 2020. 05. 25.

The Effect of Presuming Guilt in Assessing Credibility of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Misun Yi

Dong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valuators' presumption of guilty/innocent conviction of child sexual abuse cases on assessing credibility of allegedly abused child victims' statements with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Total 44 CBCA experts and non-exper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 half of them were provided with evidence tending to prove the suspect's guilt, whereas the other half were provided with evidence of presumably not guilty, before they evaluated the existing 19 CBCA criteria and statement credibility and suspicion in general with the same ca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uilt-biased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total CBCA scores than the innocent-biased group did, with higher scores in Criterion1(logical consistency) and Criterion4(reported accurately but not understood). The expert group evaluated significantly more CBCA criteria existed than the non-expert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guilty/innocent presumption and their expertise. Lastly, this study discussed cognitive bias possibly related when assessing credibility of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 and ways of reducing the potential for biased judgements.

Key words: Conformation bias,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CBCA, expert, guilt-bias